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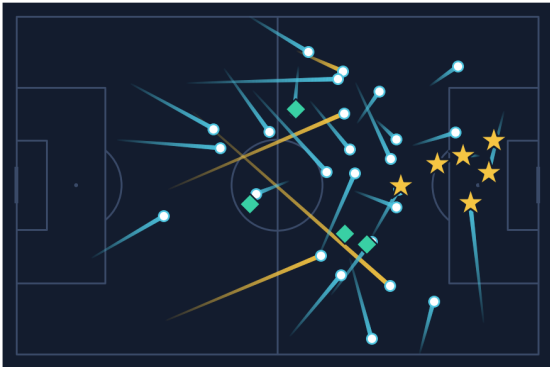
슛자가 기억하는 손흥민의 세 경기

시각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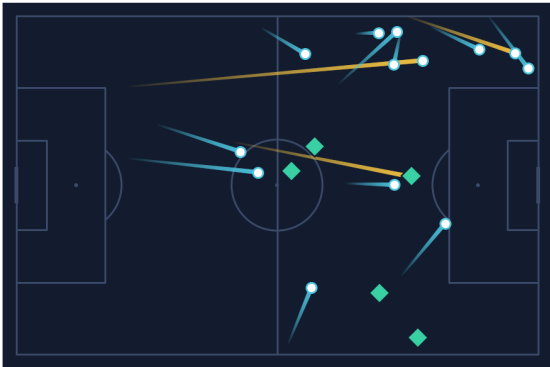
손흥민 활동맵 - 조별리그 3경기

공격 방향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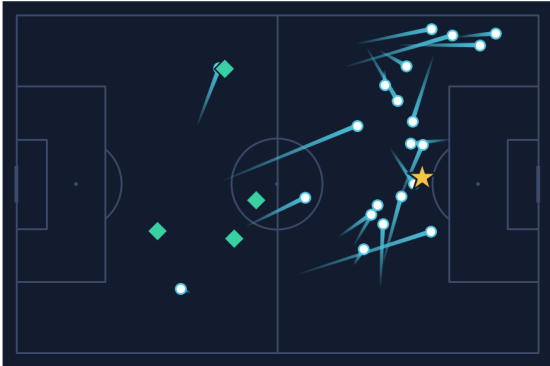
손흥민 활동맵(vs 체코)
6/12 · 2-1 승 · 선발 ~68' · 슛 6 · xG 0.65



손흥민 활동맵(vs 멕시코)
6/19 · 0-1 패 · 선발 ~56' · 슛 0 · xG 0.0



손흥민 활동맵(vs 남아공)
6/25 · 0-1 패 · 후반 시작 투입 ~90' · 슛 1 · xG 0.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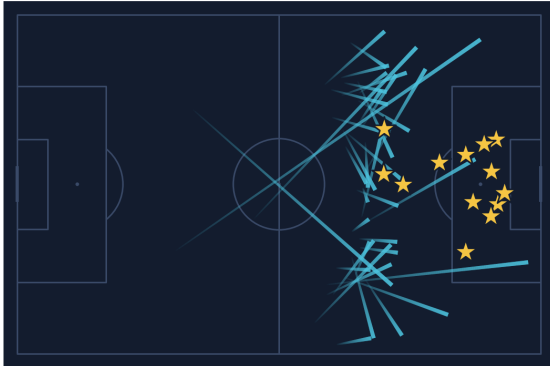


수신 패스 64회 롱볼 수신 ★ 슛 7 ◆ 수비 액션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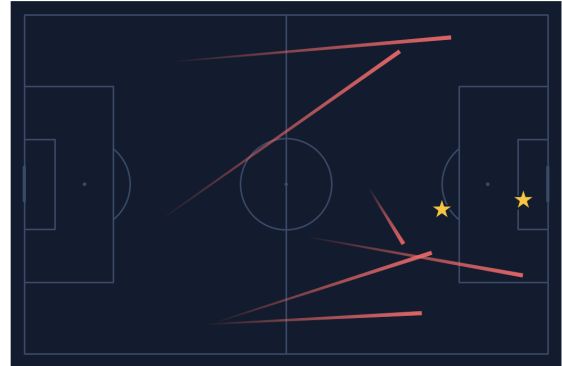
한국 공격 전개 - 손흥민 ON(좌) vs OFF(우)

파이널서드 진입 패스와 슈트 · 구간·분은 추가시간 포함 실제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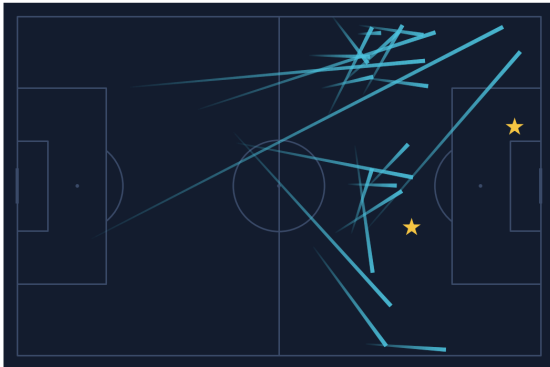
체코전 · 손흥민 ON (72분)
슈트/90분 16.2 · 진입/90분 46.2 · 크로스 2/9 · xG 1.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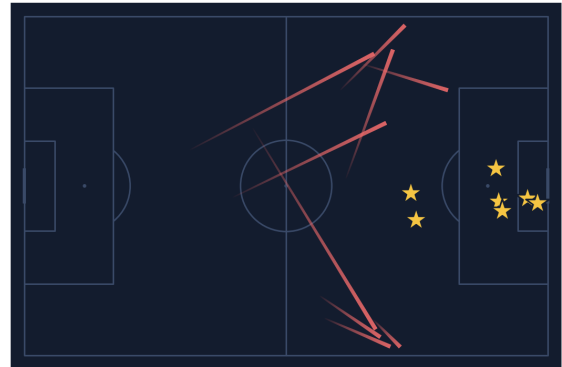
체코전 · 손흥민 OFF (28분)
슈트/90분 6.4 · 진입/90분 19.3 · 크로스 1/3 · xG 0.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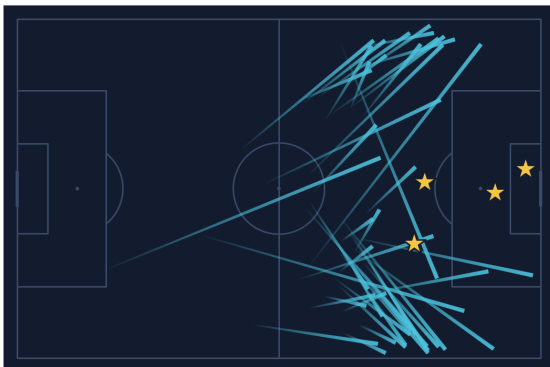
멕시코전 · 손흥민 ON (61분)
슈트/90분 3.0 · 진입/90분 32.5 · 크로스 0/3 · xG 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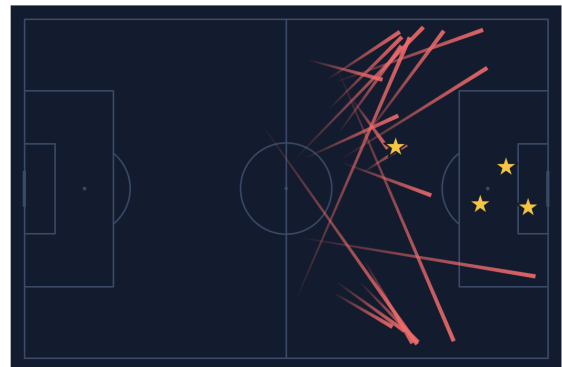
멕시코전 · 손흥민 OFF (40분)
슈트/90분 15.7 · 진입/90분 20.2 · 크로스 5/6 · xG 0.62



남아공전 · 손흥민 ON (51분)
슈트/90분 7.1 · 진입/90분 81.2 · 크로스 5/22 · xG 0.57



남아공전 · 손흥민 OFF (50분)
슈트/90분 7.2 · 진입/90분 36.0 · 크로스 2/12 · xG 0.43



2026년 월드컵 조별리그, 대한민국은 1승 2패로 조별리그에서 탈락했다. 그 3경기 동안 드러난 공격 설계의 문제는, 단순히 결과 이상의 깊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손흥민이라는 월드클래스 자원이 있었지만, 그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전술과 기용, 그리고 고집스러운 시스템 운용이 경기 내내 발목을 잡았다.

세 경기 모두 홍명보 감독은 3-4-2-1 포메이션을 고수했다. 포메이션 변화는커녕, 상황에 따라 미세한 조정조차 감지하기 어려웠다. 체코전, 멕시코전, 남아공전 모두에서 점유율은 58~68%로 높게 유지됐지만, 실제로 창출된 기대득점(xG)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특히 멕시코전에서는 0.69라는 저조한 xG가 기록됐다. 높은 점유율이 곧 공격 효율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이 수치로 드러난 것이다.

경기	포메이션	점유율%	패스	롱볼 비중%	롱볼 성공률% (성공/시도)	크로스 성공률 %(성공/시도)	파이널서드 진입	xG
체코전	3-4-2-1	62	541	11.1	50 (30/60)	25 (3/12)	64	1.84
멕시코전	3-4-2-1	58	579	12.1	35.7 (25/70)	55.6 (5/9)	72	0.69
남아공전	3-4-2-1	68	720	7.6	56.4 (31/55)	21.2 (7/33)	81	1

이 표는 대한민국이 세 경기 내내 같은 포메이션을 고수했음을 보여준다. 패스 횟수와 점유율은 꾸준히 높았지만, 롱볼 비중과 성공률, 크로스 성공률 등 세부 지표는 오히려 경기마다 불안정하게 흔들렸다. 남아공전에서는 크로스 시도가 무려 33회에 달했으나, 성공률은 21.2%에 그쳤다. 이는 공격이 측면에서 반복적으로 막히고, 중앙에서 해법을 찾지 못한 결과로 해석된다. 멕시코전에서는 롱볼 시도가 70회까지 치솟았지만, 성공률은 35.7%에 머물렀다. 롱볼과 크로스에 의존한 단조로운 공격 패턴이 상대 수비에 읽혔고, 이는 곧 득점력 저하로 이어졌다.

특히 손흥민의 기용과 관련된 의문은 더욱 크다. 체코전과 멕시코전에서 각각 68분, 56분 만에 교체됐고, 남아공전에서는 선발에서조차 제외됐다. 손흥민이 뛸 시간 동안 팀의 파이널서드 진입, 슈팅 발생, 그리고 xG 창출이 뚜렷하게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감독은 보수적 교체와 기용을 반복했다. 공격의 중심축이 빠진 뒤, 팀의 공격 효율은 즉각적으로 하락했다. 이는 단순한 선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전술적 설계와 의사결정의 한계가 수치로 드러난 장면이었다.

결국 대한민국의 공격은 높은 점유율과 패스 횟수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낮은 xG와 저효율 크로스, 롱볼 남발로 귀결됐다. 손흥민이라는 자원을 온전히 활용하지 못한 채, 세 경기 모두 같은 패턴을 반복했다는 점에서, 홍명보호의 공격 설계는 냉정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경기	결과	출전	분	터치	패스(성공/시도)	슛	xG	파울획득
체코전(6/12)	2-1 승	선발 ~68'	72	37	20/22	6	0.65	2
멕시코전(6/19)	0-1 패	선발 ~56'	61	21	11/14	0	0	1
남아공전(6/25)	0-1 패	후반 시작 투입 풀타임	51	29	19/24	1	0.03	1

*분은 추가시간 포함 실제 출전 시간.

손흥민의 조별리그 세 경기 출전 기록은, 단순히 한 스타 플레이어의 성적표를 넘어 홍명보 감독의 기용과 전술 의사결정에 대한 비판적 질문을 던진다. 수치만 놓고 보면, 손흥민은 체코전에서 6개의 슈팅과 0.65의 기대득점(xG)로 팀 내에서 가장 위협적인 공격 옵션이었다. 이 경기에서 손흥민은 68분까지 뛰었고, 그와 교체 투입된 오현규가 80분 결승골을 터뜨리며 교체 카드는 결과적으로 적중했다. 그러나 멕시코전에서는 56분 만에 조기 교체됐고, 남아공전에서는 선발 명단에서 빠진 채 후반 시작과 함께 투입됐다. 경기별 출전 시간은 각각 72분, 61분, 51분(추가시간 포함)이었다. 멕시코전의 조기 교체와 남아공전의 선발 제외는 단순한 체력 관리 이상의 의문을 남긴다.

특히 체코전에서 손흥민이 남긴 공격 지표는 그의 역할이 단순한 마무리에 그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6번의 슈팅 시도와 2회의 파울 유도, 22회 중 20회의 패스 성공은 그가 빌드업과 전방 압박, 그리고 직접적인 득점 위협까지 모두 수행했다는 의미다. 손흥민이 전방에서 체코 수비의 시선을 붙잡아두던 67분 황인범의 득점이 나왔고, 그와

교체 투입된 오현규가 80분 결승골을 터뜨렸다. 멕시코전에서는 슈팅 없이 11/14 패스 성공, 1회의 파울 유도에 그쳤지만, 이는 전반적으로 팀의 공격 전개가 막혔던 흐름과 맞닿아 있다. 손흥민 활동맵을 보면 이 기록들의 의미가 더 선명해진다. 수신 지점은 자기 진영 깊숙한 곳에서부터 상대 박스 부근까지 그라운드 전역에 흩어져 있고, 수비 액션 표식 역시 세 경기 내내 중원 아래까지 내려와 찍혀 있다. 체코전에서는 중원과 자기 진영을 오가며 볼을 되찾았고, 멕시코전에서는 상대 진영에서의 전방 압박성 수비 가담이 두드러진다. 공격의 마무리만 맡는 선수의 지도가 아니다 - 손흥민은 공수를 가리지 않고 그라운드 전체를 누비고 있었다. 남아공전에서는 후반에 투입되어 1개의 슈팅과 0.03의 xG, 19/24 패스 성공을 기록했다. 이 수치는 제한된 시간과 팀의 단조로운 공격 패턴을 감안할 때 결코 낮은 기여가 아니다.

손흥민이 뛴 시간 동안 팀의 파이널서드 진입과 슈팅 발생, xG 창출이 뚜렷하게 상승했다는 점은, 표의 ON/OFF 구간별 공격 지표에서 명확히 드러난다. 체코전에서는 손흥민이 있을 때 팀의 슈팅 발생이 90분 환산 16.2회, 파이널서드 진입이 46.2회에 달했다. 손흥민이 빠진 뒤 이 수치는 각각 6.4회, 19.3회로 급락했다. 멕시코전에서는 반대로 손흥민이 뛴 때 슈팅이 3.0회로 낮았지만, 이는 팀 전체가 전반적으로 고립된 경기였다는 맥락에서 해석해야 한다. 남아공전에서는 손흥민이 투입된 후 파이널서드 진입이 81.2회로 폭증했으나, 크로스 시도는 22회에 달하면서 공격이 지나치게 측면에 쏠린 한계도 드러났다.

이러한 데이터는 손흥민의 경기력 자체에는 큰 문제가 없었음을 보여준다. 오히려 그의 기여와 팀의 공격 효율이 강하게 연결되어 있었음에도, 감독이 보수적 교체와 기용을 반복했다는 점이 아쉬움을 남긴다. 체코전에서의 위협적인 움직임, 남아공전에서의 제한된 시간 내 기회 창출 모두가 같은 결론을 가리킨다. 손흥민이 더 오래, 더 중심적으로 활용됐다면, 한국의 조별리그 탈락이라는 결과가 달라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감독의 의사결정이 팀의 가장 강력한 무기를 스스로 제한한 셈이다.

손흥민의 진짜 한계는 개인이 아니라, 그를 둘러싼 볼 배급 구조에 있었다. 이벤트 데이터 기반의 수신 집계에서도, 손흥민은 세 경기 모두에서 동료 공격수들에 비해 확연히 더 많은 볼을 받았고, 받은 공을 잃지 않고 살려내는 비율도 가장 높았다. 체코전에서 손흥민은 72분 동안 29회 볼을 받아 90분 환산 36.2회에 달했다. 남아공전에서도 51분 출전으로 21회 수신, 90분 환산 37.1회로 팀 내 최상위였다. 특히 이 두 경기에서 손흥민의 수신 후 유지율은 각각 75.9%, 81%로, 동료 공격수들(오현규, 조규성, 황희찬 등)보다 꾸준히 높았다. 손흥민이 받은 공은 대부분 공격의 다음 단계로 연결됐다는 뜻이다.

경기	선수	출전분	수신	수신/90분	평균 수신거리	통볼 수신	수신후 유지율
체코전	손흥민	72	29	36.2	약 17m	4	75.9%
	오현규	28	8	25.7	약 23m	4	62.5%
멕시코전	손흥민	61	14	20.7	약 19m	3	71.4%
	조규성	20	3	13.5	약 40m	2	66.7%
	황희찬	40	21	47.2	약 18m	3	85.7%
	오현규	40	7	15.7	약 23m	1	57.1%
남아공전	손흥민	51	21	37.1	약 12m	0	81%
	조규성	23	6	23.5	약 29m	2	50%
	황희찬	50	19	34.2	약 21m	2	57.9%
	오현규	78	12	13.8	약 14m	0	75%

*출전분은 추가시간 포함 실제 시간.

표에서 보듯, 손흥민은 단순히 볼을 많이 받은 것이 아니라, 받은 공을 잃지 않고 살려내는 데서도 팀 내 독보적이었다. 체코전에서 오현규는 8회 수신에 그쳤고, 유지율도 62.5%에 머물렀다. 남아공전의 조규성, 황희찬 역시 수신 횟수와 유지율 모두 손흥민에 미치지 못했다. 룡볼 수신에서도 손흥민은 체코전 4회, 멕시코전 3회로 동료와 비슷하거나 더 많았으나, 남아공전에서는 룡볼이 아예 투입되지 않았다. 이는 단순히 손흥민이 '고립'됐다는 인상적 장면의 반복이 아니라, 팀이 그에게 효율적으로 볼을 공급하지 못했다는 구조적 문제로 읽힌다.

수신 패스의 평균 거리도 의미심장하다. 손흥민에게 간 패스는 체코전 약 17m, 멕시코전 약 19m, 남아공전 약 12m로, 조규성(멕시코전 약 40m)이나 오현규(체코전 약 23m)에게 향한 배급보다 일관되게 짧았다. 룡볼을 던져놓고 경합을 바라는 방식이 아니라 짧은 연계로 발밑에 공을 받았다는 뜻이고, 그렇게 받은 공을 가장 높은 확률로 살려낸 것 역시 손흥민이었다. 무엇보다, 손흥민이 받은 공의 질과 양 모두에서 동료 공격수들과 뚜렷한 차이를 보였음에도, 팀은 그를 향한 배급 루트를 충분히 다양화하지 못했다. 체코전에서는 이태석(7회), 설영우(5회), 이재성(5회) 등 몇몇 측면 및 2선 자원에 지나치게 의존했다는 점도 드러난다.

표가 보여주는 것은 분명하다. 손흥민은 제한된 기회 속에서도 받은 공을 잃지 않고, 공격을 이어가는 데 있어 팀 내에서 가장 안정적이고 위협적인 옵션이었다. 고립의 진짜 이유는 손흥민 개인이 아니라, 그에게 가는 볼의 경로가 너무 단조롭고, 감독의 전술적 설계가 그를 충분히 살리지 못했다는 데 있었다. 한국의 조별리그 탈락은, 팀이 가진 최고의 무기를 스스로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결과였다.

손흥민의 진짜 가치가 드러난 지점은, 단순히 공격에서의 존재감이 아니라 그가 보여준 수비 가담과 파울 유도에서 찾을 수 있다. 이번 대회 184분 동안 손흥민이 기록한 수비 행동은 총 13회, 그 중 볼 회수만 10회에 달한다. 특히 체코전과 멕시코전에서는 공격수임에도 각각 3회씩, 남아공전에서는 4회나 직접 볼을 되찾아왔다. 이 수치는 이벤트 데이터 기준으로 과소집계될 수 있음을 감안하더라도, 손흥민이 단순히 전방에 머문 '피니셔'가 아니었음을 보여준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수비 행동의 깊이다. 체코전에서 손흥민의 수비 가담은 평균적으로 하프라인 부근(자기 골문에서 약 60m)에서 이뤄졌고, 가장 깊게는 하프라인을 넘어 자기 진영(약 47m)까지 내려왔다. 멕시코전에서도 하프라인 근처(약 55m)까지 꾸준히 내려와 수비에 가담했으며, 남아공전에서는 자기 골문에서 불과 약 28m - 페널티박스에서 멀지 않은 지역까지 수비 깊숙이 가담하며 직접 볼을 회수했다. 남아공전의 이 장면은, 손흥민이 후반 교체 투입된 뒤에도 팀이 전방 압박에 실패하고 볼이 하프라인을 넘지 못하자, 직접 자기 진영 깊은 지역까지 내려와 수비에 가담했음을 뜻한다. 공격수가 이 정도로 후방까지 내려와야 했다는 사실은, 한국이 전방에서 볼을 제대로 공급하지 못했고, 홍명보 감독의 전술이 손흥민의 장점을 살리지 못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파울 유도 역시 손흥민의 헌신을 보여준다. 3경기에서 총 4차례 파울을 얻어냈는데, 이는 팀이 상대 압박에 고전할 때마다 손흥민이 볼을 지키며 공격의 흐름을 끊기지 않게 했다는 뜻이다. 체코전에서는 2회, 멕시코전과 남아공전에서도 각각 1회씩 파울을 얻어냈다. 이 파울들은 대부분 상대 진영에서의 돌파 과정, 혹은 볼을 지키는 과정에서 나왔다. 단순히 공격 포인트가 부족하다고 손흥민의 기여를 폄하할 수 없는 이유다.

결국 손흥민의 수비 가담과 파울 유도는, 그가 단순히 골이나 어시스트만을 노리는 선수가 아니라, 팀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누구보다 헌신적으로 움직이며, 수비와 공격의 연결고리 역할을 자임했다는 증거다. 그러나 이런 헌신적 움직임이 반복될수록, 손흥민이 자신의 강점인 박스 근처에서의 결정적 역할에 집중할 기회를 잃을 수밖에 없었다. 한국의 조별리그 탈락은, 손흥민의 보이지 않는 기여조차 팀 전술이 온전히 살려내지 못한 결과였다.

손흥민이 그라운드에서 있을 때와 없을 때, 한국의 공격은 전혀 다른 얼굴을 보였다. 이벤트 데이터 기반의 ON/OFF 분석은 이 차이를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아래 표는 조별리그 3경기에서 손흥민 출전 구간과 비출전 구간을 분리해, 90분 환산 샷 수, 파이널서드 진입, 크로스 시도·성공, 룡볼 활용 비중, 기대득점(xG)까지 비교한 것이다.

경기	구간	분	슛/90분	파이널서드 진입/90분	크로스(성공/시 도)	롱볼 비중%	xG
체코전	손흥민 ON	72	16.2	46.2	2/9	10	1.42
	손흥민 OFF	28	6.4	19.3	1/3	19.4	0.42
멕시코전	손흥민 ON	61	3.0	32.5	0/3	12.1	0.11
	손흥민 OFF	40	15.7	20.2	5/6	11.7	0.62
남아공전	손흥민 ON	51	7.1	81.2	5/22	9	0.57
	손흥민 OFF	50	7.2	36.0	2/12	8.3	0.43

*구간·분은 추가시간 포함 실제 시간. 이벤트 집계와 xG 집계의 기준이 달라 표4의 팀 집계와 ±1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이 표가 말해주는 첫 번째 진실은, 손흥민이 그라운드에 있을 때 한국의 공격이 얼마나 더 활발하게 살아났는지도. 가장 극명한 차이는 체코전에서 드러난다. 손흥민이 뛰었던 72분 동안 한국은 90분 환산으로 16.2회의 슛을 기록했다. 이는 그가 벤치로 물러난 뒤의 6.4회와 비교해 2.5배가 넘는 수치다. 파이널서드 진입 역시 손흥민 ON 구간이 46.2회로, OFF 구간의 19.3회에 비해 압도적이었다. 기대득점도 1.42 대 0.42로, 손흥민이 있을 때 더 많은 양질의 기회를 만들었음을 보여준다. 손흥민이 물러난 뒤 한국의 공격 지표는 눈에 띄게 가라앉았지만, 그와 교체 투입된 오현규가 80분 결승골을 터뜨리며 이날의 교체는 결과적으로 성공한 카드가 됐다. 다만 이 수치의 온도차는, 손흥민이 있는 동안 한국의 공격이 얼마나 그를 중심으로 돌아갔는지를 분명하게 남겼다.

멕시코전에서는 다소 복합적인 양상이 나타난다. 슛 수만 보면 손흥민이 빠진 후(15.7회)가 ON 구간(3.0회)보다 크게 늘어, 표면적으로는 교체 이후 공격이 살아난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파이널서드 진입(32.5회 대 20.2회)과 공격 전진 지표에서는 여전히 손흥민 ON 구간이 앞섰다. 이날 손흥민은 슈팅 기록 없이도 세 차례 드리블 돌파를 모두 성공시키며 공격 전개의 기준점 역할을 했고, 그가 있는 동안 한국은 더 깊숙이, 더 자주 상대 박스로 접근했다. 이날의 아쉬움은 손흥민 개인이 아니라, 그 전진을 득점 기회로 바꾸지 못한 단조로운 공격 전술에 있었다. 반면, 손흥민이 벤치로 물러난 뒤에는 롱볼이나 크로스에 의존하는 단순한 공격이 늘었고, 이는 실제로 기대득점(xG)이 0.62로 상승했지만, 공격의 질적 다양성은 떨어졌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남아공전은 손흥민의 존재감이 더욱 두드러진다. 후반 시작과 함께 투입된 손흥민 ON 구간에서 한국은 파이널서드 진입이 81.2회로, 전반(OFF 구간)의 36.0회보다 2배 이상 많았다. 이는 손흥민이 투입되자마자 한국의 빌드업이 훨씬 더 박스 근처까지 이어졌다는 의미다. 슛 수와 xG는 ON/OFF 구간 모두 큰 차이가 없었지만, 공격 전개가 손흥민 투입 후 훨씬 활발해진 것은 부정할 수 없다. 다만 그 전진의 끝은 번번이 측면 크로스(ON 구간 22회 시도, 성공 5회)로 수렴됐다. 드리블 돌파와 연계, 침투에 강점이 있는 손흥민을 두고도 팀의 공격은 그의 장점과 무관한 크로스 일변도로 흘렀고, 손흥민이 관여했음에도 이 구조적 한계를 넘어서기엔 역부족이었다.

이 모든 데이터는 한 가지 결론으로 수렴된다. 손흥민이 그라운드에 있을 때, 한국의 공격은 볼 전진, 파이널서드 진입, 위협적인 슛 생성 등 거의 모든 지표에서 질적으로 우위에 있었다. 그런데도 손흥민은 멕시코전에서 조기 교체됐고, 남아공전에서는 선발에서 제외됐다. 홍명보 감독의 이 결정은, 데이터가 말하는 손흥민의 영향력을 전혀 살리지 못한 선택이었다. 이는 단순히 한 선수의 활용 문제를 넘어, 한국이 조별리그에서 탈락한 결정적 원인 중 하나로 남았다.

손흥민의 2026 월드컵 조별리그 3경기를 관통하는 데이터는, 한 선수의 기여가 어떻게 체계적으로 소모되고 만 것인지를 집요하게 보여준다. 184분 출전 동안 손흥민은 총 64회의 볼 수신, 7개의 슈팅, 0.68의 기대득점, 4번의 파울 유도, 13번의 수비 기여를 기록했다. 특히 체코전에서만 6개의 슈팅과 0.65의 기대득점, 29회의 볼 수신을 완성했다는 점은, 상대 박스 근처에서의 위협적 움직임이 얼마나 빈번했는지 단적으로 증명한다.

아쉬운 점은 이처럼 높은 기여가 팀의 전술적 선택과 멕시코전 조기 교체, 남아공전 선발 제외라는 설명되지 않는 기용에 의해 반복적으로 제약받았다는 것이다. 표면적으로는 3-4-2-1 포메이션과 60%를 넘는 점유율, 500회가 넘는 패스 수가 안정적 빌드업을 암시했지만, 실제로 손흥민이 그라운드에 있을 때와 없을 때의 공격 효율은 극명하게 갈렸다. 체코전 손흥민 ON 구간에서 한국의 슈트/90분은 16.2회, 파이널서드 진입/90분은 46.2회에 달했으나, 손흥민이 빠진 뒤에는 각각 6.4회, 19.3회로 급감했다. 남아공전 역시 손흥민 투입 후 파이널서드 진입이 2배 이상 늘어났으나, 그 결과물을 마무리할 시스템적 뒷받침은 끝내 따라붙지 못했다.

손흥민의 볼 수신 위치와 유지율에서도, 동료 공격수들보다 짧은 연계로 공을 받았고(평균 수신거리 약 12~19m), 수신 후 유지율 역시 70%를 상회했다. 이는 단순히 터치 수의 문제가 아니라, 상대 압박을 이겨내며 직접 공격을 진두지휘했다는 뜻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멕시코전과 남아공전에서 손흥민의 투입 시간은 각각 61분, 51분에 그쳤고, 결정적 순간마다 그 존재감은 벤치에 묻혔다.

결국 한국은 A조 1승 2패, 승점 3으로 조별리그에서 탈락했다. 이 결과는 단순히 한두 번의 부정확한 슈팅이나 불운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데이터가 말하는 손흥민의 영향력, 그리고 그 영향력이 온전히 활용되지 못한 전술적 고정관념과 설명되지 않는 선수 기용 - 이 두 겹의 한계가, 32강 진출 실패라는 현실로 이어졌다. 만약 손흥민의 기여가 그라운드에서 끝까지 쓰였다면, 이 조별리그의 결말은 전혀 달라졌을지 모른다. 이 아쉬움이, 2026년 한국 축구의 가장 뼈아픈 유산으로 남았다.



명지대학교 스포츠기록분석연구센터 AI:fficial로부터 생성된 콘텐츠입니다.

데이터 출처 : Sofascore(소파스코어), 명지대학교 스포츠기록분석연구센터 AI:fficial Soccer 실시간 데이터 수집 프로그램